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 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904천km ²	G D P	8,693억 달러 (2013년)
인구	248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3,506 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piah (Rp)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10,467.60 (2013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17,5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도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석탄 등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연평균기온이 25~27℃에 달하는 열대성기후로 다양한 열대 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자원도 풍부함.
-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분출, 지진, 해일 등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2004년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음.
- 1995년 반동회의 개최를 통해 제3세계 진영에서 비동맹·중립 진영의 결속을 주도한 바 있으며,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e
경제성장률	4.6	6.2	6.5	6.2	5.3
재정수지 / GDP	-1.8	-1.2	-0.6	-1.7	-2.2
소비자물가상승률	4.8	5.1	5.4	4.3	7.0

자료: IMF 및 EIU.

□ 소비심리 회복, 수출 증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5% 시현 전망

-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각종 개혁정책 시행에 따른 투자 확대로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환율 변동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12년에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민간소비, 고정자본 투자 증가로 6.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에는 물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3%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환율 방어를 위한 고금리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총선 및 대선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환율 하락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5% 수준

- 2009년 이후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내외 수준에서 관리되었으나, 2013년에는 연료 보조금 감축에 연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음.
- 경제성장세 둔화,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전기세 인상,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전년도 연료보조금 개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진정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선거 실시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5%로 상승 전망

- 인프라 구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은 2011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나, 재정 관련 법규 준수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법은 연도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공공부채는 GDP의 60%를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보조금 지급액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7%를 시현했으나, 2013년에는 경기부양 정책 시행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세 위축으로 동 비중이 2.2%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총선과 대선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동 비중이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열악한 인프라 수준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GDP에서 동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99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시설 관리도 미흡한 실정임.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3-2014)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을 조사대상 148개국 중 61위로 평가함.

- 도로(78위), 항만(89위), 공항(68위), 전력공급(89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자바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력 생산과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음. 또한, 교통인프라의 취약성으로 물류비가 GDP의 24~27%를 차지(세계 평균 7~10%)하고 있음.

□ 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정경유착도 심각함. 세계은행은 부패가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77개국 중 이집트와 함께 114위를 차지하여, 필리핀(94위), 태국(102위)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KPK)를 설립하고 기소권과 자체 구치소 보유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패방지에 힘을 쏟고 있으나 공무원, 정치인 등 고위층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 자금 이탈에 취약한 구조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유동성 규모는 2012년 동국 GDP의 21%에 해당되는 1,863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 주식투자 760억 달러, 채권투자 461억 달러, 은행차입 642억 달러로 구성
- 2013년 중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기준금리 인상, 환율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2014년 들어 주가지수와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외국인자금 이탈과 과도한 환율 하락 방지를 위해 당초 5.75%였던 기준금리를 2013년 중 총 다섯 차례에 걸쳐 7.5%까지 인상하였음.
- 2014년 2월 20일 종가 기준, 2013년말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은 2.8% 하락하고 동국 주가지수는 7.6% 상승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 탄탄한 내수기반 보유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은 약 2.5억 명의 인구와 소득 증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2013년 민간소비가 GDP의 55.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내수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됨.
- McKinsey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30년 인도네시아는 9천만 명의 소비자가 1조 달러 규모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저임노동력 풍부

-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65.2%를 기록하여 저임노동력이 풍부함.
 - U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동 비중은 2010년 65.2%에서 2025년 68.8%까지 상승한 후 2050년까지 65.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고등교육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고급인력 대부분이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주로 포진하고 있어 고급인력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임.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 역시 세계 10위권 내로 분석되는 등 보유자원이 풍부함.
 - 석유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각각 약 40억 배럴(세계 27위)과 3.1조 입방미터(세계 13위)임. 광물자원 중에서는 주석이 80만 메트릭톤(세계 2위), 니켈은 390만 메트릭톤(세계 6위), 동은 2.8만 메트릭톤(세계 8위)의 매장량을 보유함.
- 다만, 각종 규제와 자원 민족주의적 정책 추진으로 보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투자 부족에 따른 설비 노후화로 석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4년부터 석유순수입국이 되었으며, 금년 1월 광업법 개정으로 광물 수출세 부과,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산 지분양도 규제 강화 등 자원 민족주의적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투자환경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신투자법을 제정하여 내외국인 동등대우, 자유로운 과실송금 허용,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명시하였고, 2012년 2월 신투자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투자계획안에는 투자절차 간소화,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 강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투자제한산업 축소,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10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동 정책 시행을 감독할 범부처적 기구를 설립하면서 강력한 정책 시행 의지를 표명하여 민간 부문의 환영을 받았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2013년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22.4% 증가한 281억 달러를 기록함.

□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경상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연료보조금 감축

-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료 과다사용은 상품수지에, 자동차 판매 증가 및 유가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액 상승은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연료보조금 지급액은 2009년 45조 루피아에서 2012년에는 306조 루피아(약 326억 달러)로 급증하여 예산 210조 루피아를 크게 초과하였음.
- 5개의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여 국회와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였음. 정부는 동 개혁조치를 통하여 무역수지 개선과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 해소를 기대하고 있음.
- * 쌀 지원 프로그램,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가계지원 프로그램,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
- 201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연료보조금 개혁으로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각각 44%와 22% 인상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었으나, 세계은행은 동 조치가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e
경 상 수 지	10,629	5,144	1,685	-24,074	-29,578
경 상 수 지 / GDP	2.0	0.7	0.2	-2.7	-3.4
상 품 수 지	32,287	31,003	33,825	8,677	4,829
수 출	113,266	149,966	191,109	187,347	178,286
수 입	80,979	118,963	157,284	178,670	173,457
외 환 보 유 액	60,572	89,970	103,611	105,907	92,834
총 외 채 잔 액	172,918	202,445	225,418	252,446	265,303
총 외 채 잔액 / GDP	32.1	28.6	26.6	28.8	30.5
D. S. R.	17.3	10.7	11.0	9.9	11.5

자료: IMF, EIU 및 IIF.

□ 환율 약세에 따른 수출 확대로 2014년 상품수지 흑자는 71억 달러 수준

-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석탄, 천연가스, 팜오일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최근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2012년에는 주요 수출품의 단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87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 2013년 상품수지는 소비와 투자 성장세 둔화, 연료보조금 축소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 위축으로 상품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흑자 규모가 48억 달러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루피아 환율이 전년초 대비 크게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품수출이 확대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7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지 악화로 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1% 시현 전망

-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과실송금액 증가, 외채잔액 증가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2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급감으로 경상수지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더욱 확대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3.4%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과실송금액 증가, 외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상환 규모 증가로 소득수지가 악화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4.1%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투자 유입에 힘입어 2014년 외환보유액은 941억 달러로 증가 전망

-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1,05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13년에는 외국인 자본 이탈과 경상수지 적자 시현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 방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928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시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94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외채잔액 규모는 양호한 수준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2년과 2013년에 소폭 증가하여 30.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잔액 규모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동국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0년 이후 9~11%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정권교체가 예상되나 정치적 불안 야기 가능성은 저조

- 민주당(Democrat Party: PD)의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총선 승리와 재선 모두 성공하였으나, 고위 당직자의 연이은 부정부패 의혹, 부실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쟁민주당(PDI-D)과 골카르당 지지율은 각각 22%, 16%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약 8% 수준으로 2009년 총선 당시 득표율(21%)에 크게 못 미침.
- 현 자카르타 시장인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후보의 지지율이 당내외 대선후보보다 높아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는데, 평화적 정권교체 경험을 보유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교체가 극심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보복성 테러 발생, 테러리스트 석방 임박 등 불안 요소 잠재

- 2002년 제마이슬라미야(JI)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찰 대테러부대를 활용하여 JI 조직원을 체포·사살하는 강경책을 구사하였는데, 2012년말까지 820명의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고 80명을 사살하여 동 조직의 무력화에 성공함.
- 그러나 탈종교적 성격의 보복성 테러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미국, 호주의 외교시설에 대한 테러 시도가 적발되는 등 테러 위험이 남아 있음. 특히, 수감 중인 테러리스트 중 약 300명이 2013~14년에 석방되면서 테러 위험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성장의 혜택이 일부 지역,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경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며,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최근 소득격차의 급속한 확산을 반영하여 1999년 0.31에서 2009년 0.37, 2010년 0.38, 2011년 0.41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

-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이슬람회의기구), G20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역할 증대에 적극적임.
- ASEAN 창설을 주도하는 등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2006~08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였음.

□ 중국과의 관계는 긴밀하나 역내 영향력 확대는 견제

-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등에 합의하는 등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인도네시아는 중국-ASEAN FTA 발효 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중국의 지나친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역내 균형 유지를 위한 미국과 관계 개선

-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기조 하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역내 관여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2010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국빈 방문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군사협력은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정상화되어 2005년 미국의 대 인도네시아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Kopassus)와의 합동훈련을 재개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무난한 수준의 채무상환 태도

- 인도네시아는 과거 채무재조정 및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였음.
 - 동국은 2002년 67억 달러, 2005년 26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2003년 중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동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였음.
- 2013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246.1억 달러 (단기 66.2억 달러, 중장기 179.9억 달러)이며, 연체액은 22.5억 달러로 무난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양호한 경제성장 등으로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이 상향 추세

- 2011~2012년중 OECD와 3개 국제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모두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OECD는 2013년 6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견고하여 양호한 경제성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3등급으로 유지함.
- Moody's는 2011년 1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Ba2에서 Ba1로 1단계 상향조정 한데 이어, 2012년 1월 내수시장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 유지 전망 등을 근거로 다시 1단계 상향조정한 Baa3등급을 부여하였음.
- S&P는 동국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상향조정(2011. 4월)하였으나, 보조금 제도 개선 등 개혁조치 시행 필요성, 대외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조정함.
- Fitch는 2011년 12월 높은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흑자 유지,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동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1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행	C1 (2013. 7.)	C1 (2012.12.)
OECD	3등급 (2013. 6.)	3등급 (2012. 3.)
S&P	BB+ (2013. 5.)	BB+ (2011. 4.)
Moody's	Baa3 (2012. 1.)	Ba1 (2011. 1.)
Fitch	BBB- (2011.12.)	BB+ (2011. 2.)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s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9년), 항공협정(1989년, 2000년 개정), 투자보장협정(1994년), 문화협정(2007년), 범죄인인도조약(2007년), 원자력협정(2011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對 인도네시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3,564	13,955	11,568	석유제품, 철강관, 합성수지, 편직물
수 입	17,216	15,676	13,190	천연가스, 석탄, 원유
합 계	30,780	29,631	24,758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으로, 천연가스, 석탄, 원유 수입액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주요 수출품인 석유 제품과 철강관 수출액도 급감하면서 2013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49억 달러 감소한 248억 달러에 그침.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8위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동국 앞 해외투자 실적은 1,756건, 72억 2,106만 달러(2013년말 누계 기준)를 기록함.

V. 종합 의견

-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 둔화로 2013년 경제성장률은 5.3%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나, 선거 실시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과 환율 하락에 힘입은 수출 증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5%로 증가할 전망이다.
-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기세 인상 등으로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4년에는 연료보조금 제도 개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진정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5.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그간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끼쳤던 연료보조금 개혁이 2013년 단행되었으나 경기부양 정책 시행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세 둔화로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2%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총선과 대선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동 비중이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과실송금액 증가, 외채잔액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 규모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3년 3.4%에서 2014년에는 4.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최근 유도요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으나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의 총외채규모는 GDP 대비 30.5% 수준으로 양호하며, 기존 IMF 차관을 2006년 조기상환하는 등 채무상환태도 역시 무난하여 단기적 지급불능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